

담당부서 : 사법지원실

담당자 : 강종선 심의관

공보관실 : ☎ 3480-1324



2013년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 개최

- 대법원은 매년 정기인사 직후 국민참여재판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경험 공유 및 know-how 전수를 위하여 전국 국민참여재판 담당 재판장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해 옴
- 2012년의 경우 대법원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나, 2013년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사건을 참관한 후에 주제발표 및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간담회의 효과를 극대화함
-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종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부장판사가 “국민참여재판의 바람직한 실무운영 방안”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한 후 참여법관들과 국민참여재판의 구체적인 진행절차 및 유의점 등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를 함
- 주요 논의사항
 - 국민참여재판의 실시범위의 확대 :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들에 대하여도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충분한 쟁점정리를 거쳐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, 폭력·교통사고·모욕·명예훼손 등 이른바 ‘생활밀착형 부인사건’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여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에 반영할 필요 있음
 - 연일개정 실무의 정착 :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철저한 심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가급적 심야재판을 지양하고 2일 이상 연속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연일개정 실무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

- 판결서 간이화 : 향후 최종형태 단계에서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의 구속력이 부여되는 것과 연계하여,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동일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에 비하여 판결서를 대폭 간이하게 작성하는 관행을 형성해 나갈 필요 있음

1 간담회 목적

- 정기인사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담당 재판장들의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하기 위한 정례적 행사
- 국민참여재판 경험 재판장의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운영 방안에 대한 know-how 전수
- 특히 2013년 간담회의 경우, 주제발표 및 토론에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(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)가 진행하는 실제 국민참여재판[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합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]을 참관함으로써 간담회 참여법관들의 절차숙지와 자신감 배양에 도움을 주도록 함

2 간담회 일정

(1) 개요

- 일시 : 2013. 3. 25. (월) 09:30 ~ 16:00
- 장소 : 서울북부지방법원
- 참여법관 :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담당 재판장 총 20명

(2) 세부일정

- 오전 : 서울북부지법 2102고합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 등) 배심원선정절차 및 공판절차 참관
- 오후 : 주제발표 및 토론
 - [제1주제] 2008 ~ 2012년 국민참여재판 현황 보고 -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
 - [제2주제] 국민참여재판의 바람직한 실무운영 방안
 -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종호 부장판사
 - 준비단계, 공판준비절차, 배심원선정절차, 증거조사 등 공판기일 진행, 재판장설명, 평의 및 평결, 양형토의 등 단계별 진행절차 및 유의점

[자유토론] 김종호 부장판사 진행

□ 세부일정

시 간	내 용	진 행
09:00~09:15	등록	사법지원심의관
09:15~09:20	법원장 인사	서울북부지법 공보관
09:30~12:00	재판방청(배심원선정절차 및 공판절차)	김재환 부장판사
12:00~13:30	중식	
13:30~14:00	①주제 발표	사법지원심의관
14:00~14:10	휴식	
14:10~15:00	②주제 발표	김종호 부장판사
15:00~15:10	휴식	
15:10~16:00	자유토론	김종호 부장판사

③ 주요 논의사항

(1) 국민참여재판 실시범위의 확대

- 현재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들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강력범죄 사건들이 많았고, 기록이 방대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부패범죄·경제범죄 사건들의 경우 피고인측의 신청기피 현상 등으로 인하여 실시건수가 많지 않았음
- 국민참여재판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하여 앞으로는 기록이 방대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들에 대하여도 피고인측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충분한 쟁점정리를 거쳐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
- 특히 최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형태에서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는바, 위와 같이 복잡한 사건들에 대하여도 점차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음
- 또한,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폭력사건, 예견가능성을 다투는 교통사고사건,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건 등 이른바 ‘생활밀착형 부인 사건’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여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

(2) 연일개정 실무의 정착

- 현재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들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강력범죄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판준비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한 후 1회의 공판기일로 재

판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음

- 그런데 당초 계획된 증거조사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배심원들의 요구로 무리하게 예정된 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을 마치기 위하여 심야까지 재판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, 그 경우 배심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충분한 평의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심야재판은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음
-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철저한 심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2일 이상 연속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연일개정 실무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

(3) 판결서 간이화

- 최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함(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)
- 향후 최종형태 단계에서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의 구속력이 부여되는 것과 연계하여,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동일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에 비하여 판결서를 대폭 간이하게 작성하는 관행을 형성해 나갈 필요 있음

(4) 기타

-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,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있음
-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하는 경우 바로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철회 경위를 들어보고 잘못된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신청의사를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할 필요 있음 <끝>